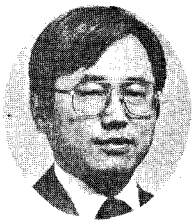
한·미합동 수의임상 연수회를 열면서



김 현 영
재미한인수의사 회장

이제 재미한인 수의사회가 대한수의사회와 합동으로 제 1 차 공동수의임상연수회를 조국 한국에서 갖게 됨은 여러면에서 큰 의의가 있음을 볼 수 있읍니다. 오늘 한국 수의계의 역사적 계기가 될수 있는 공동연수회를 열게 하여주신 대한수의사회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한국에서는 대개 대학교수들을 임명시 자기대학 출신자를 채용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자기대학에서 학위를 받은자 보다는 다른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자를 채용하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석사나 박사과정을·공부하는 과정에서 자기대학 교수한테 배운 것을 또 자기대학 학생들에게 가르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가르칠 수 없어 다른 대학에서 학위받은 자를 채용하여 새로운 것을 심고자 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때 이번 공동연수회는 같은 한국 수의과대학 출신이지만(하병래 원장은 미국 수의과대학 출신임) 적어도 10여년을 다른 문명권에서 접하면서 많은 새로운 정보를 교환한다는 것은 무엇 보다도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읍니다.

그간 조국 한국의 수의계는 크게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읍니다. 과거 20년전 아니 10년전만 하여도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지난 2~3년간 저희들 재미 한인수의사 들에게는 눈으로 확인 한 바가 있읍니다. 즉 재미 한인 수의사회 총회시 매년 10여명의 한국임상 수의사께서 자비로(부부동반자도 있었음) 총회를 참석하고 미국 수의계를 돌아보고 갔으며 정부기관이나 학교계통에 수의사들도 미국수의계와 많은 접촉이 있어 왔음을 볼 수 있읍니다.

이러한 차제에 한국계 미국 수의사로서 조국 한국과 미국 수의계와의 사이에서 양국 나라의 정보를 교환하여 수의계를 발전시킬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저희 재미 한인수의사회가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목적과 의의가 있다고 하겠읍니다.

이번에 본 공동연수회에 연사로 참석하는 재미수의사회 대표들은 미국에서도 수의계 각 전공 분야에서 열심히 공헌하고 있는 분들로서 많은 시간과 더구나 그들 자신들의 자비로서 참석하고 있음을 볼때 조국 한국의 수의계를 위하는 마음 우리는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하여야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수의과대학 교육년한은 대개 수의예과 4년과 수의과대학 4년 등 8년을 훈련받으며 또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가는 수의과대학 졸업생과 한국수의과 출신들과의 비교는 처음부터 할수도 없는 문제이지만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수의사들의 많은 분들이 미국사회에서 professional로서 자타가 인정할만큼 굳은 자리에서 공헌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재미 한인 수의사들이 오늘에 있기까지는 여러분께서 상상도 할 수없을 만큼의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미국나라는 특히 우리 한인수의사들에게는 노력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주었던 것입니다. 즉 그곳에는 continuing education 이라는 특수한 교육제도가 있는나라 입니다. 미국대학 출신 수의사들도 매년 continuing education에 참석치 않고는 발전하고 있는 학문에서 따라갈 수 없는 차제에, 우리 한인 수의사들은 비록 기초와 언어장벽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continuing education에 미국인 보다 더 열심히 참석하여 최신학문을 익혀 온것입니다. 미국의 continuing education은 AVMA (미국수의사회), 각주수의사회, 각지역 수의사회, 각 수의과대학(각 대학에는 continuing education dept.가 따로 있어 그일만 관장하고 있음), 그 외에 AAHA (미국 동물병원 협회), 각종 수의협회 등 많은 세미나가 일년간 계속 있으므로 본인만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배울수가 있읍니다. AVMA 같은 총회도 seminar을 중심으로 일주일씩 진행하며 business meeting은 점심시간을 이용 1~2시간 정도로 새로 임명된 임원을 소개하는 정도로하여 회원들의 continuing educatinon을 얼마나 중요시 하는지 볼 수가 있읍니다.

제가 특히 이자리를 빌어 더욱 강조하고 싶다면 continuing education을 계속 잘 조직하고운영하여 세계적인 정보교환을 함으로써 한국 수의계가 발전되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바입니다. 또한 수의계 활동에서 임상수의사들을 중심으로 임상수의사들에 의하여 수의계가 움직여 질 때 한국의 수의계가 본 궤도에 올랐다고 보겠읍니다.

미국에서 보면 미국수의사협회(AVMA)는 주로 임상수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 되었으며 운영되고 있읍니다. 물론 대학기관, 정부기관, 산업체 등에서 대표가 참석하여 전체적인 균형을 잘 유지하여 운영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익을 위하여 수의교육, 면허시험, 정부정책 등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읍니다. 수의과대학 인준에서 예를 든다면 AVMA는 각 수의과대학을 4년에 한번씩 시설과 교수진을 점검하여 accrediation을 주고 있는데, 이 심사에 합격치 못한 수의과대학 출신은 면허시험 자격조차 받을 수가 없는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있는 우리 재미수의사 들로서 조국 수의계에 대하여 가장 가슴 아픈것은 수의과 대학이 6년에서 4년으로 후퇴한것이며 더구나 수의과 대학도 아닌 수의학과가 우후죽순 격으로 설립된 것입니다.

시설과 교수진이 없는곳에 수의학과를 인준하는 문교부도 문제이지만 신청하는 대학자체가 더욱 문제인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약 100년전 순수한 교육이념이 아니라 몇사람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설립되었던 많은 사립수의학교가 혹심한 경제공황, 자동차산업혁명, 그리고 법령에 의하여 처음으로 주립수의과 대학이 설립되면서 모두 없어졌는데 오늘날에 와서 그때 그들은 역사적 심판을 받고 있는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것입니다. New York 같은 주정부에서는 E.C.F.V.G. (외국수의과대학 출신으로 미국수의사면허시험 응시 자격증) 자격이 있어도 한국 수의과 대학 교육년한이 4년이란 이유로 우리 한국출신은 시험 볼 자격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리핀 출신은 그들교육이 6년이기 때문에 응시할 자격을 갖고 있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 continuing education은 여러분 특히 임상수의사 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들의 질을 높이며 그리하여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을때에 비로서 대학기관, 정부기관 또는 산업기관에서 일하는 수의사들도 사회에서 함께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1984년 6월 26일